

박찬휘시집

파
리
한
파
리

연변인민출판사

박찬휘 제4시집

파리한 파리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인덕

책임교정: 최순란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苍白的苍蝇: 朝鲜文 / 朴灿辉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 1

ISBN 978-7-5449-0047-8

I. 苍… II. 朴… III. 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008397号

苍白的苍蝇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3.625 字数: 90千字

标准书号: ISBN978-7-5449-0047-8 (民文)

版次: 2009年1月第1版

2009年1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15.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책 머 리 에

시창작을 해온지도 어느덧 7년 세월이 되었다. 그동안 시를 포기하고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부모님을 비롯한 고마운분들의 따스한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시창작을 견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걸음, 한걸음 그냥 앞으로 간다고 갔는데 어느날엔가 나는 어른으로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하였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시가 나에게 준 건 다만 성숙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나에게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갖다주었던것이다.

가슴에 품은 참된 사랑으로 계속 나의 길을 가련다. 고마운분들께 나의 참된 사랑을 베풀련다.

대학원 입학에 도움을 주신 리관복교수님, 채미화교수님, 김관웅교수님, 허휘훈교수님, 김상파(金祥波)교수님, 리설화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처음부터 아껴주시고 투자해주신 연변과학기술대학 총장 김진경할아버지께 이 시집을 바친다.

박 창 휘

2008년 12월

大正

책머리에 / 1

제1부 · 길

감기 / 3

사랑 / 4

길(1) / 6

길(2) / 7

망(望) / 8

기차 / 11

숨박곡질 / 13

꽃(1) / 15

구두 / 16

천(千) / 18

끈 / 21

제2부 · 파리한 파리

강 / 25
령(零) / 28
모기 / 30
스쳐가다 / 31
경(硬) / 33
역(驛) / 35
탈 / 37
소(少) / 39
거미(1) / 41
거미(2) / 42
지붕우의 풀 / 44
극(極) / 46
파리한 파리 / 48

제3부 · 흑(黑)

꽃(2) / 53

환(环) / 54

갈대 / 56

황(慌)(1) / 57

황(慌)(2) / 59

고드름 / 61

흑(黑)(1) / 62

흑(黑)(2) / 64

고(高) / 67

마음 / 71

수평선 / 73

손(1) / 75

손(2) / 77

제4부 · 명태

단풍잎(1) / 83

단풍잎(2) / 85

풍경 / 87

꽃(3) / 90

꽃(4) / 93

꽃(5) / 96

나무(1) / 99

나무(2) / 101

나무(3) / 103

나무(4) / 105

명태 / 107

כ. ב. ח. א.

감기

그대 이마 생각하며
전화번호 뽕뽕 누른다

목소리 사랑고백처럼
긴장되고 떨리기 바랐다

목구멍에
함께 한 여름
걸리기 바랐다

손
수화기 으스스하게 잡기 바랐다

가벼운 기침에
그대 이마 땀
더 이상 앓아있지 못하기 바랐다

사랑

그대와 함께 있으면
나는 성냥 굶는다

타오르는 불길앞에서도
그대는 나만 바라보았고
넋 빼앗긴
나는 타드는 성냥에
손 떨렸다

그대는 나의 손가락
성냥처럼 굶는데
바람 불어왔고
아직 나는 담배에
불 붙이지 못했다

더 이상
나에겐 성냥 없었다

길(1)

땅에 묻힌 길들이
일어서면서
나무에 생명 피운다

인생은 질러가도 돌아가도
삼십리
길은 이어놓든 널어놓든
륙십리

단풍잎이 길 구르며
않을 때
길은 변비였다

길 (2)

땅 일으켜세우면
길 나온다

넘어졌던 길
비켜섰던 길
멀리왔던 길

길은 미풍에도 들뜨지만
땅보다
낮고 단단했다

가고가고
생(生), 지나가는 길을
굽히든 넓히든
죽음보다 길었다

길이 세월 조인다

망(望)

생활엔 일상(日常) 있다
일상엔 여자 있다
녀자에겐
사랑 눌러담는 밥공기 있다

담고담아
밥 된 밥공기
언제부터인지
담을 밥 없어
돌로 굳어졌다

녀자는
강에 돌 던졌다
돌
굽이 만들지 않을가

녀자는 강 들어다본다
돌
강에 닳아지여
녀자는 손만 움지락거린다

돌이
펼치는 견고한 풍경우에서
녀자
강 채우고
녀자가 건너지 못한
강
녀자 건너
래일 앞서간다

집엔 녀자 있다